

■ 르포-추석 일주일 앞두고 태풍 강타 나주 배 농가 가 보니

태풍에 우수수 낙과...“올 농사 망쳤어요”

465ha 낙과 피해...주력 품종 ‘황금배’ 피해 커
나무 꺾이고 잎 떨어져 남은 과일도 성장 못해
영암·순천 배 농가도...곡성 사과농가도 피해 호소

제13호 태풍 ‘링링’ (LINGLING)이 휩쓸고 지나간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배농장은 ‘처참’ 그 자체였다.

태풍이 덮친 지 하루만인 8일 오전 10시께 찾은 배농장 바닥에는 출하를 앞둔 어른 주먹보다 큰 배들이 가득했다. 새파란 잎들도 강풍을 견디다 못해 바다를 나뒹굴었다. 농민들의 입에선 배나무까지 상해 내년 배 농사도 망쳤다는 푸념이 터져나왔다.

15년 째 1ha(3만3057㎡) 대지에 1000그루 가량을 재배 중인 농장주 남형근(60)씨는 “추석 명절 대목을 맞아 출하를 앞둔 배 중 4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올해는 정말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그는 또 “흔히 낙과만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광합성을 해 영양분을 전달해야 할 잎들이 모두 떨어져 남아있는 배들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씨는 “한그루 당 200~300개의 배가 열리는데, 이번 태풍으로 100여 개의 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배 하나당 수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5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피해금액만 50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종인 ‘황금배’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6일과 7일 태풍 ‘링링’이 전남지역 과수농가 등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확철을 맞은 농부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이상 저온에 이어 긴 가을장마,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과수농가들이 역대급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전남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번 제13호 태풍은 7일 오전 6시 기준 23.6%의 강풍을 동반하며 나주시 배 재배 농가 465ha에 낙과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배의 경우 대개 절기상 ‘처서’가 지나고 첫 서리가 내리는 음력 9월 10일경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태풍은 배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배 농가들의 말이다.

배 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영암과 순천시 낙안면 등도 이번 태풍으로 대규모 낙과 피해를 봤다. 강선배 낙안배영농조합법인 상무이사는 “가을장마로 수확 시기를 놓친 데다 올 추석은 여느 해보다 빨라 규모가 그 어느 해보다 컸다”고 말했다.

배와 함께 수확철을 앞둔 사과농가들도 극심한 낙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 사과 주산지인 곡성에선 44ha 사과 농장이 낙과 피해를 입었다.

앞치대 달진적으로 9일에도 크고 작은 비 소식이 예보돼 태풍피해 복구에 나선 과수농가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한 농민은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 뒷수습을 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30~80mm의 양의 비가 내리고, 해안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나주=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일 나주시 산포면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남형근씨가 태풍 ‘링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배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나주시 등 전남지역 1160ha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윤리교사가 여학생에 성희롱 발언

전남도교육청 조사 착수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해당 교사는 사건 당일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하교하려던 여학생을 불러 세운 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진위여부를 조사 중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우는 아이 거꾸로 들고, 입 때리고...

광주지법, 어린이집 원장 징역

우는 원생들을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손바닥으로 체벌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기철)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7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인 여자아이 3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교실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고향을 치고 책으로 다리를 때렸으며, 계속 울자 아이의 두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또 낮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눕혀 책으로 입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합의 안 해 준다” 피해자 흥기 살해 40대 징역 20년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로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3일 밤 9시 5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A(39)씨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7월 4일 A씨를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날 A씨를 다시 만나 합의해주지 않은 일로 다투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새마을회 이웃돕기 후원금 5억 다른 용도 집행” 주장

광산구새마을회회장, 부패방지신고센터에 고발

광주시새마을회가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타 용도로 집행하고, 국제협력기금을 자체 부채상환 비용으로 불법 집행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광주시새마을회, 광산구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광산구새마을회 K회장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신고센터에 광주시새마을회의 고질적인 내부 부조리 9가지를 고발했다.

K회장은 대표적 부조리 사례로 광주시지가 2012~2018년까지 모금한 5억원의 후원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불법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구 새마을회가 조성한 국제협력기금 7100여만원도 회관부채 상환과 은행자입금 상환 등 목적외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K회장은 특히 2017년 광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시 산하 5개구 새마을회를 통해 첫솔판매사업으로 1억3500만원의 판매수

입을 올렸지만, 관련 회계자료 등이 폐기돼 집행 내역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회장의 이번 내부 부조리 고발은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문제 삼아 자신을 제명할 때 따른 반발성 고발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산구새마을회 K회장을 제명 처분했다. 광산구새마을회가 중앙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회관 건립부지를 매각한데다, 대체건물 매입 과정에서 회계 운영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K회장은 “자체 이사회 등 총회

까지 거쳐 추진한 사항인데도, 중앙회가 마치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제명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했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새마을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개선은커녕 제명이라는 징계로 되돌아 왔다”며 부패방지신고센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새마을회 관계자는 “전임 회장 재직때 발생한 문제로 모두 종결됐다”며 “이번 문제가 된 K회장도 시새마을회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새마을회는 이번 중앙회의 광산구새마을회장의 제명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광주시 5개구 새마을회 사무국장에게도 후유증을 우려해 인사발령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차량 훔쳐 달아났던 전과 43범, 담배꽂초에 덜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전과 43범인 30대가 무심코 차안에

버리고 내린 담배꽂초 때문에 덜미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7월 3일 밤 10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노래방에서 카운터 벽면에 걸린 업주 B(68)씨의 자동차 열쇠를 훔친 뒤, 인근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는

것.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난당한 차량을 찾아낸 뒤 운전석 아래 버려진 담배꽂초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좀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주인은 없고 카운터에 걸린 자동차 열쇠가 눈에 들어와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 생 교 육 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임야

바로 삽니다, 맹지 사절

문의. 010-6834-74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